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금강산의 어원

III. 담무갈 보살의 유래

IV. 회암사의 유래

V. 나가는말

IV. 회암사의 유래

지공스님 : 마하가섭. 가섭불과 연관된 집안



양주 회암사 조사전 내 지공 진영



지공스님 이동경로

IV. 회암사의 유래

지공스님 연대기

연도	인물	내용
1300	출생	석가모니佛의 부왕인 정반왕(正飯王)의 아우인 곡반왕(斛飯王)의 후손. 한국계열
1308(8세)	출가	인도 마가다국(摩竭提國: 지금의 네팔 남쪽) 왕자 출신. 아드님 삼형제분이 출가 하면 아버지병환 꽤유
1319(19세)	법통계승	스리랑카 . 스승의 명으로 가섭계열 보명존자 제자됨 . 목은 이색이 지은 <지공화상부도명병서(指空和尚浮土 +屠銘竝序>에 의하면 가섭존자의 108대 법손(法孫)
1320-1325(26세)	해외포교	북경 도착, 원의 황제 진종으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환생한 부처님"으로 추앙
1326	고려방문	지공선사에 대한 우리나라 내에서의 행적은 양주 회암 사, 여주 신륵사, 양산 통도사, 조계산 송광사, 광주 무 등산 지공선사 수도굴과 너덜깅, 강화 교동면 화개사 등 당시 정치적인 승려가 머물던 수도 개경(開京 개성) 을 벗어난 깊숙한 산중사찰에서 그의 발자취가 보인다.
		이 절에서 잠시 머물다 그 후에 제자가 된 나옹대사에 게 명하여 회암사를 크게 중창. (반야선VS간화선)

IV. 회암사의 유래

金守溫의 「檜巖寺重創記」

김수온 「회암사중창기」 『拭疣集』 권2 “昔天曆間 西天博伽納提尊者 見此寺之基 以爲酷似西天阿蘭陀寺 且曰 迦葉佛時 已爲大道場 於是執繩量地 以定其位 時得劫前礎砌 當時暫庇屋宇 以識其叢而已 有玄陵王師普濟尊者 受指空三山兩水之記 遂來居此 乃欲大創 分授棟樑 奔走募緣 功未及半 而王師亦

담무갈 보살-> 과거불-> 가섭불

고려말 檜巖寺의 중건과 그 배경

金 澈 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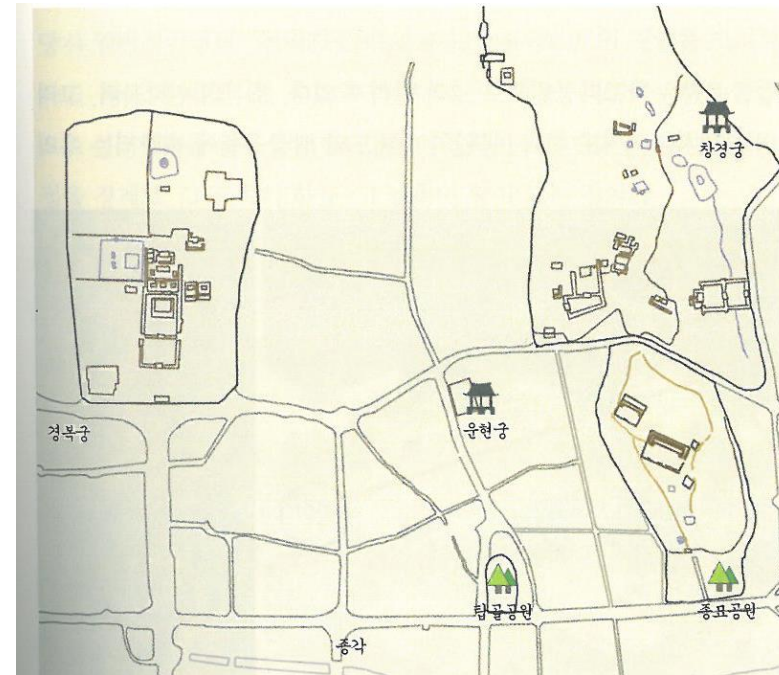
IV. 회암사의 유래

출전	내용	비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부루가 부여의 임금일 때, 대신 아란불(阿蘭弗)의 꿈에 천제가 나타나, 동해 바닷가의 가섭원(迦葉原)이란곳으로 도읍을 옮겨라."라고 명해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기로 했다. "동해 바닷가에 땅이 있는데 가섭원이라 한다. 땅이 기름져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니 가히 도읍으로 삼을 만할 것이다."고 했다	
무학결	천황 지황 인황후 천하지대금산 육장금불이 능언하고 화위전녀라	
정경희	가섭불은 신라인들이 석가불 이전 한국선도 전통속의 삼성을 불교의 과거불인 가섭불로 표현한 것이었다. 삼성중 세번째가 단군이며, 가섭불은 많은 과거불중 석가불 직전의 부처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삼성중 마지막의 단군이 가섭불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이렇게 한국선도의 삼성 전통은 가섭불론으로 모습을 바꾸어 불교전통 속으로 흡수되었다. 이렇게 과거의 삼성에 대한 기억이 가섭불론으로 攝化되었던 반면 현재나 미래의 삼진 각성의 가능성은 미래불, 곧 彌勒佛과 결합하였다. 미륵불사상은 삼국시대 선·불 습합 현상의 중심이 될 정도로 극히 중시되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미륵下生사상'이 중심이 되었다. (삼국시대 仙·佛 습합의 '彌勒思想')	

IV. 회암사의 유래



▶ 3원이란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을 말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 목판본의 일부분에 3원의 위치를 표시해 보았다.



◀ 경복궁, 창덕궁 · 창경궁, 종묘 부근의 현재 지도. 38쪽의 사진에서 3원의 배치와 그 구도가 닮았다.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역사 중에서

IV. 회암사의 유래

